



## 투자전략팀

Strategist/Economist **홍춘욱**

02) 3787-4964

chunukhong@kiwoom.com

## 트럼프 열풍과 브렉시트 사태의 공통점

### 선진국 중하층, 자유무역 및 이민정책에 반감

#### 목차

자유무역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2
선진국 중하위층 소득증가는 미미, 개발도상국 국민의 소득은 크게 증가	3
선진국 중하위층, 자유무역 확대 및 이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4
불평등 심화되면, 반 자유무역 운동이 더욱 세를 볼릴 수 밖에 없어	4

#### 반(反) 자유무역 및 반(反) 이민 운동이 세를 얻는 이유는?

최근 미국의 트럼프 열풍과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Brexit)에서 보듯, 자유무역정책 및 이민자들을 향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분석한 두 편의 논문을 소개함으로써, 최근 선진국에 불어 닥친 정치흐름의 배경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살펴 보려함

#### Lanker와 Milanovic, “세계화로 선진국 중하층 소득 부진”

Lanker와 Milanovic이 세계은행에 실은 2014년 논문에 따르면, 선진국 중하층이 그동안 개발도상국의 상류층보다 월등히 나은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과 이민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 냉전 기간 동안 국제적 인구이동이 어려웠기에, 선진국 국민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는 것.

하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에 성공하여, 선진국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음. 이제 '나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나, 나와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할 줄 아는 다른 나라 사람'이 대거 등장하면서 개도국 상류층 및 중산층의 소득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 증가가 정체 상태에 빠졌다는 것.

#### Acemoglu, Autor 등, “신흥국 저가상품 비중 확대,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로 연결”

Acemoglu, Autor 등은 중국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미국 시장에서 급속도로 점유율을 올린 것에 주목.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퇴한 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수를 줄이면서, 미국 가계의 중위 실질소득은 2000년대 들어 정체되었다는 것.

#### 불평등 심화, 반(反) 자유무역·이민 운동의 ‘원천’

선진국 중하층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유무역 확대 및 인구 이동의 증가로 소득이 정체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기 때문.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반(反) 자유무역·이민 운동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경제 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더욱 심화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유무역정책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Lanker와 Milanovic,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무역확대로 전세계의 소득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

Acemoglu, Autor 등, "미국 내 중국산 제조업제품 수입증가가 고용 구조의 변화를 촉발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영국의 EU탈퇴(Brexit) 국민투표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 열풍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무역정책 및 이민자에 대한 혐오'를 들 수 있다. 왜 선진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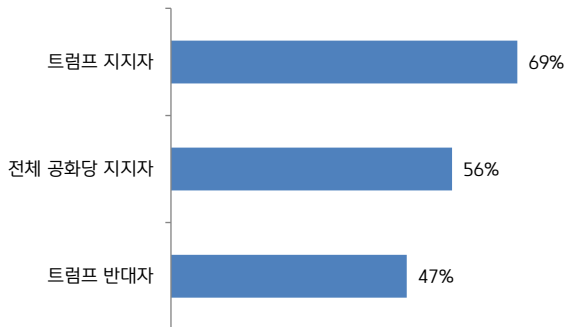
이에 대해 Lanker와 Milanovic는 세계은행에 게재한 논문, <글로벌 소득분포 - 베를린장벽 붕괴부터 대불황까지(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sup>1</sup>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무역확대로 전세계의 소득 분포에 변화가 생겼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중국 등 개발도상국 상품이 선진국의 마트를 점령하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실질 구매력의 개선을 경험한 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Acemoglu, Autor 등은 전미경제연구소에 실은 논문, <수입 경쟁 및 2000년대 미국 고용불황(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sup>2</sup>를 통해 "미국 내 중국산 제조업제품 수입증가가 고용 구조의 변화를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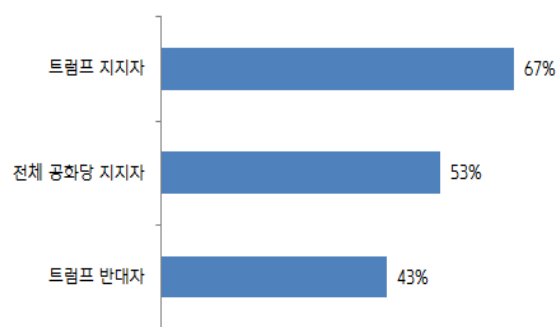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이상의 두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선진국에 불어 닥친 정치흐름의 배경을 분석하는 한편, 어떤 변화가 앞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점쳐 보고자 한다

### 미국 이민자 및 자유무역정책에 관한 설문응답(2016년 5월)

이민자들은 미국에 부담을 주는가? ("그렇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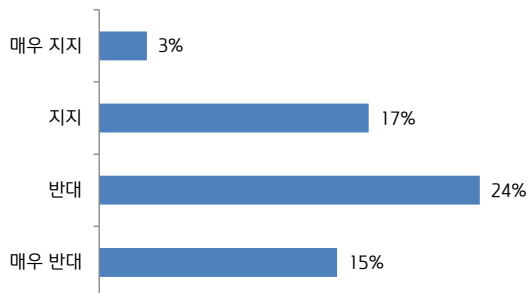
자유무역은 미국경제에 해로운가? ("그렇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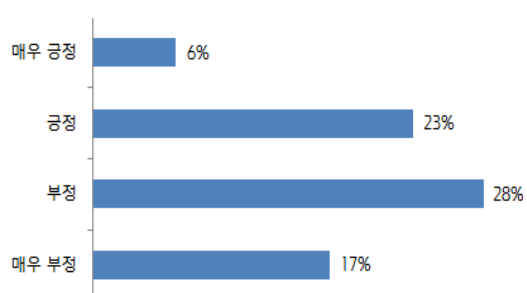
자료: PewResearch, 키움증권

### 영국정부 이민정책에 관한 설문응답(2016년 1월)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평가



이민이 영국에 미치는 영향



자료: YouGov, 키움증권



## 선진국 중하층 소득증가는 미미, 개발도상국 국민의 소득은 크게 증가

Lanker와 Milanovic,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 국민의 우월한  
지위가 흔들려”

Lanker와 Milanovic는 2013년 세계은행에 실은 논문에서 전세계인을 소득 순으로 나열하여 글로벌 소득분포(Global Income Distribution)를 구하였다. 그리고 베를린장벽 붕괴(1989년)부터 금융위기 발생(2008년)까지의 소득증가율을 계산하였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글로벌 소득분포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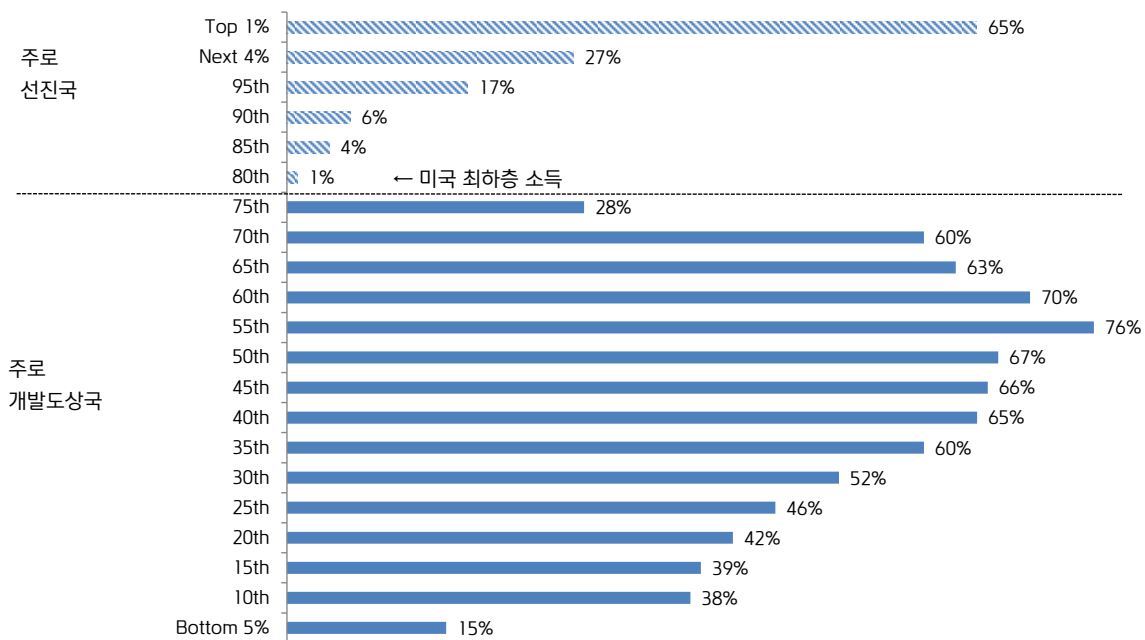
첫째, 선진국 최하층의 소득은 전세계 최상위 20~25%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등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소득은 개발도상국의 중산층보다 높다는 이야기이다.

둘째,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은 20년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소득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동유럽 국가가 시장경제에 편입되고,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인도 등이 경제성장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선진국 최하층이 웬만한 개발도상국의 상류층보다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과 이민이 활발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만약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면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이주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이 낮아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전까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규제하였기에, 선진국 국민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세계화가 진행되고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국 국민의 우월한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제 ‘나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나, 나와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할 줄 아는 다른 나라 사람’이 등장하며 선진국 중하층의 소득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선진국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게 Lanker와 Milanovic의 지적이다.

글로벌 소득 증가율(1988~2008년)



자료: Lanker&Milanovic(2013), WSJ, 키움증권



## 선진국 중하위층, 자유무역 확대 및 이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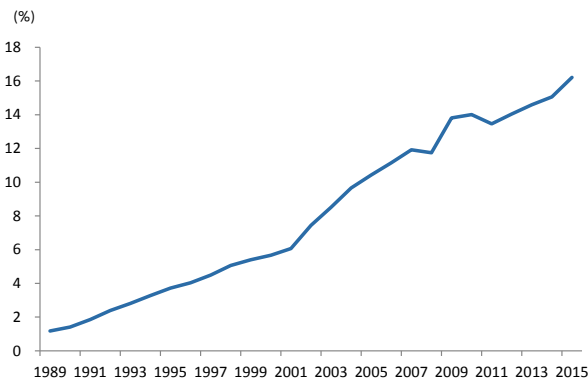
Acemoglu, Autor 등,  
“미국 제조업 고용  
규모가 감소하며  
가계의 중위 소득이  
정체상태에 빠져”

한편 Acemoglu, Autor 등이 2014년 전미경제연구소에 실은 논문은 인구이동보다는 자유무역 증가에 따른 불평등 심화 문제에 주목한다.

중국인 수출주도 전략을 통해 1989-2008년 동안 연평균 10.1%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출은 가파르게 늘어나, 미국 수입 중 중국제품의 비중은 1989년 1.2%에서 1999년 5.4%, 그리고 2009년 13.8%로 증가했다(2015년은 16.2%). 또한, 경제발전 초기에는 저숙련(low-skilled) 상품 위주였지만, 2004년 고숙련(high-skilled) 비중이 50%를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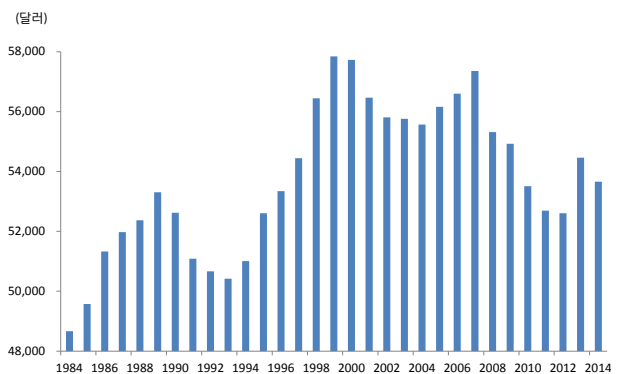
이런 변화는 제조업 종사자 수의 감소를 불렀다.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수는 1999년 1,700만에서 2009년 1,200만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중산층 일자리인 제조업이 위축되자, 미국 가계의 중위 실질소득은 2000년대 들어 정체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게 한편 Acemoglu, Autor 등의 지적이다.

미국 전체 수입액 대비 중국산 제조업상품 수입액 비중



자료 : UN COMTRADE, 카움증권

미국 가계, 중위 실질소득 추이



자료 : US Census, 카움증권

## 불평등 심화되면, 반 자유무역 운동이 더욱 세를 볼릴 수 밖에 없어

당분간 반 세계화  
반 이민자 운동의  
세력이 강화될 전망

이상의 분석을 통해 최근 Brexit 운동 및 트럼프 후보의 주장이 큰 세력을 형성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유무역 확대 및 인구이동의 증가로 소득이 정체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반(反) 자유무역 및 반(反) 이민 운동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제 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 대응이 어려워질 경우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up>1</sup> Lakner, Christoph & Milanovic, Branko, 2013. "Global income distribution :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6719, The World Bank.

<sup>2</sup> Daron Acemoglu & David Autor & David Dorn & Gordon H. Hanson & Brendan Price, 2014. "Import Competition and the Great U.S. Employment Sag of the 2000s", NBER Working Papers 2039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